

무안공항 중국 전세기 5편 취소... 1000여명 방문 무산

외국인 2만명 한국 방문 포기...이탈 가속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무안공항의 중국 전세기편이 취소되고, 119종 합상항실에 문의가 쇄도하는 등 불안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중국 우한에서 무안공항으로 오는 티웨이 항공의 6월 전세기 5편이 취소

됐다.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 720명의 전남 방문이 취소됐으며, 수도권을 경유하는 300여 명의 중국 관광객까지 포함하면 1000여명의 중국 관광객이 메르스로 인해 전남 방문을 포기했다. 이 같은 대규모 예약 취소로 인해 음식점, 호텔, 관광업체 등이 울상을 짓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2만 여

명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 방문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 119종합상황실로 문의 전화가 계속되면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모두 10명의 의심환자를 이송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단순 고열환자로 판명됐다.

전남도소방본부는 이들 의심환자 이송 후 구급차량 및 대원을 소독하고 구급대원의 메르스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구급대

원 보호복 1900세트, 마스크 4000개를 보급하는 한편 8일 감염방지 대책회의를 가졌다. 소방본부 측은 감염환자를 이송할 경우 2주간 해당 구급차의 운행을 정지하고 구급대원을 격리조치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메르스 확진 권한을 갖게 된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4시간 메르스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지역에서 아직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주민들이

감염을 우려하고 있고, 중국 관광객 방문 취소가 잇따르는 등 피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격리 및 치료를 통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여파로 지난 7일까지 한국 관광을 취소한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이 2만명을 넘어섰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우리나라 여행을 포기한 외국인인은 2만600

명으로 전날의 1만1800명에 비해 74.6% 늘어났다. 이는 지난 3일의 전년대비 증가 폭인 71%를 상회하는 것이어서 국내 관광 시장에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다.

4일 방한예약을 취소한 외국인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이 4천400명으로 가장 많고 대만 2천900명, 일본 1천명, 동남아 300명, 홍콩 200명 등이다. 중화권 국가가 85.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8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주차장에서 금호고속 직원들이 고속버스 구석구석에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금호고속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고속버스의 차량 내부와 송풍구, 화물칸까지 특별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 <금호고속 제공>

외출 자제...버스·지하철 승객도 급감

버스, 일주일새 주말 14%·지하철 19% 줄어

광주시, 시내버스 소득·기사 제공 마스크 확보키로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공포가 확산하면서 광주지역 대중교통 이용객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메르스 확진판정 환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대중교통 수단인 메르스 전염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탓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시설에 대한 소독과 긴급방역 등 뒤늦은 대책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시와 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본격 알려진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광주지역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228만2313명(하루평균 45만642명)이다. 이는 전주 대비(지난달 27일~31일) 243만4529명 보다 15만2216명(6.25%) 적은 수치다.

주말인 6일 이용객 수는 34만8000명으로 전주 40만2666명보다 5만4666명(13.6%) 줄었으며 휴일인 7일엔 29만1103명→32만1825명(전주)으로 9.5%(3만722명)가 감소했다.

지하철 이용객 수는 더 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주(3일~7일) 지하철 이용객 수는 23만6412명으로 전주 25만8635명 보다 8.6%(2만2223명) 줄었다. 주말인 6일 이용객 수는 3만8582명으로 전주 4만7428명보다 88.46%(18.7%) 줄었으며 휴일인 7일엔

2만8192명→3만3577명으로 16.0%(5385명)가 감소했다.

이용객 수가 감소한 이유는 메르스 공포가 엄습하면서 시민들이 바깥 출입을 자제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대중교통이 감염의 주요 경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점도 기피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서울·부산에서 발생한 메르스 환자가 대중교통 수단인 KTX와 지하철 등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었다.

시는 광주에서 의심환자가 꾸준히 나오는 상황에서 뒤늦게 시내버스(984대) 기동·의자 등에 대한 긴급소독이 나서는 한편 운전기사 2400명에게 제공급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대중교통 기피현상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는 오는 12일까지 마스크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종형기자 golee@·백희준기자 bhj@

피해 업종·지역 맞춤형 대책 나온다

정부 합동 점검반 운영...세월호 참사 지원책 검토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따른 경제 여파가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자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8일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메르스로 피해를 본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를 위해 지난해 세월호 당시 지원 대책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메르스에 따른 경제 여파를 점검하는 주체를 개별 부처가 아닌 관계 부처 합동 점검반으로 격상했다. 점검반은 소비, 서비스업, 지역경제, 대외부문 등 각 부처 국장급으로 구성된 4개 반으로 구성했고 메르스로 인한 소비, 관광·여행·숙박·공연·유통 등 서비스업, 지역경제, 외국인투자 등 대외부문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점검 결과,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피해 업종 및 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월호 당시 발표

했던 지원책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메르스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메르스 관련 경제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 발표 여부를 조만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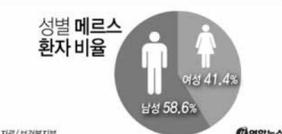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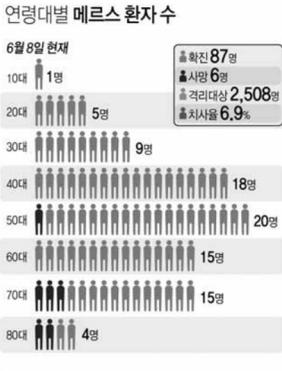
정부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로 여행과 운송 업종에서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을 겪자 금융, 세제 등의 지원책을 내놴었다.

이에 따라 메르스 대책이 마련된다면 관광 등 피해 업종과 피해 지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정부는 여행·운송·숙박업체 운영자금 지원 차원에서 500억원 규모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동원했다. 지원금리는 2.0%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3.0% 금리로 총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중 10% 이상을 경기도 안산과 진도군 지역에 우선 배정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가 가장 컸던 안산·진도 지역에서는 세입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와 함께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분할납부 조치도 이뤄졌다.

/연합뉴스



WHO 공동조사단 원인 규명 착수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파견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공동조사단이 8일 한국에 도착, 이르면 9일부터 보건당국과 국내 메르스 전파 원인과 양상 등을 규명한다.

케이지 후쿠다 WHO 사무차장이 이끄는 합동 조사단은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며 9일부터 우리나라

정부와 공동 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 IHR)에 따라 WHO는 국제적인 질병확산이나 잠재적으로 국제협력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당사국과 협력해 현장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에는 WHO 본부·서태평양 본부의 전염·바이

러스·감염 예방 및 통제 전문가와 과거 중동에서 메르스 발병을 다뤘던 경험이 있는 공중보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를 거점으로 오는 13일까지 메르스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과 이후 감염 경로, 격리 시설 등을 둘러보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조사단은 우리나라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평가와 자문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제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추천회원

초혼	재혼
<p>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p> <p>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p> <p>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p> <p>은행원, 연구원 29-49세</p> <p>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p> <p>사업가, 자영업 29-39세</p> <p>세무사, 연구원 29-48세</p> <p>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p> <p>교사, 교수 28-49세</p>	<p>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p> <p>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p> <p>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p> <p>의사, 약사, 교사 25-39세</p> <p>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p> <p>공무원(5급-9급) 27-42세</p> <p>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p> <p>간호사, 은행원 26-47세</p> <p>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p> <p>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p> <p>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7-36세</p>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운대빌딩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양림지점 652-9203 서동본점 720-2828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